

# 사랑의열매

ISSUE **147**  
2019 JULY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소다수 나눔 콘서트 현장에서 만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  
기분좋은 나눔 함께해요”

깨끗한 자연을 우리 곁으로  
열매와 함께 만드는  
초록 지구별

##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하여

‘제로 웨이스트’, ‘노 플라스틱’ 캠페인 등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무심결에 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전기를 낭비하지 않거나, 승용차를 타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환경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지구를 위해 여러분도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는 생활 수칙을 한 가지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사랑의열매 공식 SNS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http://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0g](http://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0g)



**ceo\_seohyun**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갑자기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니...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돈을 넣는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야"라고 말하는데 오~잉 어찌 알았지?  
 그 후로 여름인..., "착한 일 했으니깐 쇼핑해야지~"라고 말하는 여름이, 아... 너란 아이 누구 배 속에서 나왔냐?

#제주여행 #제주공항 #육아스통 #딸땀에뭏산다 #사랑의열매 #딸스타그램 #립스타그램 #좋아요



**gaeul\_mam**



#용돈교육  
 라면 다섯봉지와5일 치용돈 기부하심.

#나눔활동 #나눔팔찌 #수지나눔문화축제 #나눔하고부끄러운이가을씨 #5천원의행복 #이가을한테는젤큰돈



**thezara9**



장애인복지센터, 양로원, 아동복지센터에서 틈틈이 봉사 활동을 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오늘의 봉사 활동은 양파를 캐러 상화마을로!

#봉사활동 #양파 #따뜻한마음

**나눔 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pjh00000**



#사지말고인양하세요 #휴일 #봉사활동 #덕분에운 좋았다 #경쟁이들 #유기견 #창업마산유기견 #마산유기견 #창업 #motivation



**ssong\_ju0029**



#사랑의열매 #소다수콘서트 탄산음료 행사아님, 사랑의열매 행사임.ㅋㅋㅋㅋ

#박수홍 #손현수 #제아 #리누 #유성은 등의 연예인이 와서 점심시간에 콘서트를 열어주었다 정기 후원이나 큰 금액 대신 단돈 2,000~3,000원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소액 기부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사 까까 값이지만 하나씩 사먹다 보면 어느새 텃장을 마주하게 되듯이 소액 기부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하면 나눔의 결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싶다.

# CONTENTS



## 깨끗한 자연을 우리 곁으로

05 아는 것이 힘! 지구를 공부합니다

07 미래를 위한 환경지킴이

## 10 커버스토리

소다수 나눔 콘서트 현장에서 만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

## 14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한라엠앤디 대표 안성우 아너

## 18 특별 대담

예종석 회장이 만난 미주 동포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리더  
이종문 회장

## 20 나누는 사람들

한국형 기부자 조연구금에 100억 기부한  
에터미 박한길 회장, 도경희 대표

## 22 착한기업

에너지 나눔 희망 파트너 한국남동발전



## 사랑의열매

vol. 147 2019 / 07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7월 / 통권 147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6 이슈

사랑의열매 · KBO 나눔문화 활성화 위한 홍보 협약

## 27 현장 스케치

제1회 나눔네트워크 파티

## 28 나눔 캠페인

'소다수 나눔 캠페인' 론칭 콘서트 현장

## 30 땡큐 사랑의열매

"은퇴자 선배에게 듣는 직업 실전 노하우"

## 34 나눔과꿈

"나눔과꿈 사업은 세상 변화 이끄는 혁신 발전소"

## 36 나의 '첫'사랑

삼성생명 임순이 상무

## 38 '먹을 수 있어 좋구나'

신선놀음이 필요한 한량에게 추천하는 민어

## 40 힐링 타임

책과 함께 하는, 읽는 휴가

## 44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 55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 56 독자 페이지



# 열매와 함께 만드는 초록 지구별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진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휴가지 등 여름철에 유독 환경 관련 문제가 많이 언급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7월,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살펴봄여 소중한 지구와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업사이클링 교육을 통해 환경운동가로 거듭나고 있는 교육생들

**PART**  
1

## 아는 것이 힘! 지구를 공부합니다

단순한 환경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하고 자연을 체험하는 교육이 진행 중이다. 아이는 물론 어른도 재미있게 지구를 배우고 있다.

### UP사이클링 프로젝트

삼성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된 '경력 단절 여성 주부와 지역 카페가 함께 하는 지속 가능 환경보호를 위한 UP사이클링 프로젝트'다. 화성시 동탄 치동천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주부들은 소양 교육, 실천 교육 등으로 환경 보전 의식을 향상시키며, 환경보호 홍보물을 제작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 개선에도 앞장선다. 또한 현 옷으로 컵 홀더를 제작하는 등 재활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디자인을 거쳐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교육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가로 거듭난 경력 단절 여성 주부들은 추후 창업 또는 취업 등으로 연계될 수 있어 여성 사회 참여율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MINI INTERVIEW

**“쓸모없는 물건의 쓸모를 발견하는 일인 것 같아요”**

UP사이클링 프로젝트 참여자 김민숙



“나눔과꿈 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성 주부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었어요. 프로그램 구성부터 실현 가능성까지 모두의 생각과 바람이 더해졌죠. 그래서 나눔과꿈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저도 당연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육에 참여할 때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걸 직접 느껴요. 오늘 업사이클링 컵 홀더를 완성했는데요,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청바지가 컵 홀더로 바뀐 걸 직접 눈으로 보니 특히 더 인상적이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후 나온 플라스틱 그릇을 한번 더 활용하고, 일회용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바다를 품다’에 참여한 아이들의 한마디

“조개를 잡아서 커다란 통에 담았어요. 선생님이 바닷물을 채워주시며 집에 가서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갯벌에서 백합을 캐어요. 좋은 거 잡았다고 선생님이 칭찬해주셨어요. 근데 한 개밖에 못 잡아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갯벌에서 지는 해가 멋있었어요.”

“선생님 말을 잘 듣지도 않은 저를 이해해주고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갯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갯벌에 사는 생물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작은 조개랑 게 방생 안 한 팀 혼내주세요.”

‘아이, 바다를 품다’

현대자동차가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환경 단체인 생태지평연구소가 진행하는 해양 환경 교육 서비스 사업이다. 바다와 갯벌을 접하기 힘든 내륙 지역 청소년에게 갯벌 체험을 통해 다양한 생물 종을 직접 관찰하고 채집해보는 여행 서비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양 갯벌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생활 속 실천 방안을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교사는 젊은 자원 활동가로 구성한다. 청년이 적은 농촌의 아이들에게 좋은 형과 오빠, 누나와 언니가 되어 즐거운 체험을 함께 해 아이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내 몸  
청소년을 위한 환경 도서 제작 및 보급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에코맘코리아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환경 유해 인자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플라스틱 관련 환경 도서 약 6,000권을 제작해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책에는 <바다에서 온 소포>라는 제목의 동화로 환경을 지키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요령을 담을 계획이다. 또 이 도서 콘텐츠를 활용해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환경 보건 교육과 관련 미술 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 바다를 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



대표적인 황사 발원지인 쿠부치 사막을 걷고 있는 녹색봉사단

**PART**  
**2**

## 미래를 위한 환경지킴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 결과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특별한 사업을 소개한다.

### 지구살리기 녹색봉사단

삼성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은 ‘국내외 사회적 소외 계층의 미래 인재 양성과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지구 살리기 녹색봉사단’은 청년 인재 30명과 지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조림 활동을 벌였다. 쿠부치 사막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사막으로 중국의 대표 황사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사단법인 미래숲에서 발족한 ‘녹색봉사단’은 2006년부터 쿠부치 사막에 식수하는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4,300헥타르 지역에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미래숲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합심한 결과 쿠부치 사막에 16km의 숲이 조성돼 황사의 주변 지역 이동을 막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높은 활착률을 보





## MINI INTERVIEW

###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2019년 녹색봉사단에 참여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약봉



“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에요. 개인적으로 미래숲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녹색봉사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2016년에 가족과 함께 내몽골 지역을 여행했는데, 그때는 푸른 초원과 높은 하늘을 보며 아름다운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내몽골 쿠부치 사막에 가보고 지구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체감했어요. 조림 활동도 인상적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환경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좋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양국은 총을 겨누는 적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인인 제가 한국 팀원과 같이 나무를 심으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게 와닿더라고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뉴스나 SNS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탓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녹색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양국 간 간극을 줄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며 나무가 잘 자라 사막화 방지 조림의 세계적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 녹색봉사단에는 사회 배려 계층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청년 인재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환경보호 활동과 한중 청년 교류, 세계시민 교육을 함께 하며 차세대 인재로서 역량을 길렀다.

### 견내량 해양 쓰레기 정화

삼성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된 ‘화삼어촌계와 고교 환경 동아리가 함께 하는 견내량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됐고,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들었다. 견내량은 수백만 평의 거머리말 군락이 있던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해역이다. 하지만 부유 쓰레기와 수중 침적 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문제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014년부터 통영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1급수사람들’과 함께 정화 사업을 시작했으나 한계에 봉착했다. 진입 도로가 없는 해안 부유 쓰레기와 침적 쓰레기 수거 작업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눔과꿈 사업



주말마다 통영고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해안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에 참여한다.

에 선정되면서 손도 대지 못한 채 지켜봐야 했던 쓰레기들을 하나둘 치우게 되었다. 견내량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는 견내량 인근 화삼어촌계 사람들과 통영 지역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고교 환경 동아리 회원들, 선촌마을 부녀회와 노인회, 선촌마을회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 주민 대부분이 해안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맡았다. 진입 도로가 없는 해안과 섬 주변 해안 쓰레기 정화 팀과 침적 쓰레기 정화 팀까지 크게 세 팀이 정화 작업에 참여했다. 사업 1년 차인 지난해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며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올해와 3차 연도인 내년까지 지속적인 정화 작업을 통해 깨끗한 통영 바다를 되찾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



깨끗한 견내량을 되찾기 위해 인근 선촌마을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 MINI INTERVIEW

### “마을 공동체와 해양생태계가 회복된 소중한 시간이예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옥철 의장



선촌마을 화삼어촌계장이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이끄는 지옥철 의장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영 바다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2014년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과 함께 돌이서 해안 쓰레기 정화 활동에 나섰다.

“어느 순간부터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차차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해양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었어요. 학생들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지 의장은 나눔과꿈 사업 공모를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았다. 지난 경험에 토대로 직접 제안서를 작성했고, 지난해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사업 소식을 들은 통영시에서 친환경 바지 선물, 5개 수협에서 해상 크레인을 제공받으면서 본격적인 해양 정화 사업에 나섰다. 학생들과 어촌계, 부녀회, 노인회 등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며 1년 만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물론 시민 단체에서도 견학을 오고 벤치마킹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 최초로 어촌계가 감당할 수 없는 처리 비용 때문에 사실상 손도 대지 못한 침적 쓰레기를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루었다.

“예전엔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 쓰레기가 생기면 바다에 버리기 일췌였는데 지금은 절대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더라고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던 지역 주민들도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모르게 있던 갈등이 해소되고 전보다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었고요. 대부분 노인층인 지역 주민과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하며 계층 간 이해의 물꼬를 텄죠.”

해양생태계에도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다. 해양 생물인 거머리말(잘피)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곳에 어류들이 산란을 하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가 감지되었다. 특히 해마의 서식지인 거머리말이 확산되면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 복해마도 이곳에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어업은 잡거나 기르는(양식) 것에만 국한되었는데 이제는 보존하는 어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앞으로 꾸준히 정화 활동을 해 지속 가능한 바다로 만들고, 생태 환경을 보존해 새로운 어업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업 부제는 ‘해마가 춤추고 일곱줄망둑어가 뛰노는 잘피숲 바다 생태환경 우리가 만들어요다. 이처럼 해마와 망둑어가 뛰노는 푸른 바다를 만날 날이 곧 찾아오기를 기대해본다.

소다수 나눔 캠페인 콘서트 현장에서 만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던  
어머니의 기도, 사랑의열매 통해 이룹니다”



지난 6월 13일, 소다수 나눔 캠페인 콘서트 현장에서 방송인 박수홍을 만났다.  
 나눔의 현장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그는 선한 인상만큼이나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하는 박수홍의 나눔 스토리.

푸르른 6월의 어느 맑은 날, 광화문 일대를 들쭉  
 이계 만드는 흥겨운 소리를 따라가보니 사랑의열  
 매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박수홍이 있었다.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랑의열매가 새롭게 기  
 획한 소다수 나눔 캠페인 콘서트의 진행을 맡아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출연진과 관객 사이에  
 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크고 화려한 무대  
 가 아니었음에도 박수홍은 진심으로 신이 나 콘  
 서트를 이끌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귀한  
 시간을 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박수홍이 고맙  
 다는 인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콘서  
 트가 끝난 후, 무대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아 가  
 뽐 숨을 내쉬고 있는 박수홍에게 물었다. 뭐가 그  
 령게 고마우신가요?

“고맙죠, 고맙죠. 정말 다 고맙죠. 이런 나눔 콘서  
 트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제안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디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열매 덕분에 다양한 나눔 행사에 참여하  
 고, 홍보대사까지 맡아 활동 중인데요. 이런 모든  
 게 정말 너무 감사하죠. 부족한 저에게 재능 기부  
 나 나눔 기부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박수홍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곧 선  
 물인 셈이다. 누구나 가질 수 없고,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귀한 선물 말이다. 그래서 그는 언  
 제 어디서든 나눔의 현장이라면 “고맙다”, “감사  
 하다”는 인사를 한다.

### 어려웠던 시절, 잊지 못할 따뜻한 정

유난히 하얀 피부에 배우 못지않은 준수한 외  
 모, 부드러운 말씨의 소유자인 박수홍은 전형적  
 인 서울 남자 이미지로 고생 한 번 해보지 않았  
 을 것 같은 이미지다. 하지만 그는 최근 어머니와  
 함께 출연 중인 인기 프로그램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공개해 큰 화제  
 를 모으기도 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가난이란 게 얼마나 불  
 편한 건지 모를 거예요. 사람을 가장 불편하고 힘  
 들게 하는 게 첫째가 건강, 둘째가 가난이라고 저  
 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워봤거  
 든요. 진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반지하 집 말이에요. 그  
 게 바로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왜 어려운 이웃을 돕는가, 왜 나눔에 앞장서는가  
 를 질문한 것 같다. 박수홍은 망설임 없이 “어려

2017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착한가정에 가입한 박수홍



“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은 것만큼  
 고마운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워봤으니까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수홍은 어려웠던 시절을 불행하게만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박수홍의 가족을 돕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수홍의 어머니를 대신해 박수홍 삼 형제를 동네 이웃들이 돌아가며 챙기고 돌보아주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대로 일하느라 바쁘실 때 동네 어머님들이 우리 삼 형제 밥도 때때로 챙겨주시고, 반찬도 가져다 주시곤 하셨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웃들의 따뜻했던 정은 아직도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가족이 어려웠을 때 주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으로 일어섰듯,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분들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 마음 부자로 만들어 주신 어머니

박수홍의 나눔 활동에 박수홍의 어머니 지인숙 씨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어머니는 요즘 연예인 아들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박수홍은 어머니와 함께 착한가정에 가입하고 홍보 광고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다.

“저희 어머니는 사랑이 아주 많은 분이세요. 지

혜로우시고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후 방 하나와 거실 겸 부엌밖에 없는 작은 반지하 집에서 4년을 책만 읽고 계셨어요.(웃음) 삶을 포기한 것처럼 수염 길게 기르시고 방에 앉아 책만 보셨다니깐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큰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셨지요. 지금은 어렵지만 아들이 꼭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박수홍은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고 나눔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만 같아서 더없이 기쁘단다. 그리고 박수홍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보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한다. 박수홍과 그의 가족이 착한가정 가입과 공익광고 출연뿐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연탄 6,000장을 기부하고 가족이 함께 배달 봉사를 하는 등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사랑의열매에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이 대환영해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요. 어려웠던 시절 저희 가족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툭툭 뭉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웃을 돕기 위해 툭툭 뭉치려고 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 부자로 자란 때문인 것 같아요!”

1 나눔의 현장엔 언제나 박수홍이 있다.  
2 연탄 6,000장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까지 한 박수홍 가족. 3 2030 세대를 위한 토닥토닥 토크 콘서트에서는 재능 기부로 MC를 맡았다.





### 나눔은 물질 아닌 마음의 여유로 시작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은 박수홍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박수홍은 세상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을 목격하는 순간들에 감동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했다.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이나 저명인사들의 막말 등으로 도배되잖아요. 그럼 무슨 세상이 이런가 실망하고 그래요. 하지만 사랑의열매 행사에만 참여해도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요. 아, 그런 건 일부 나쁜 사람들에 불과하구나... 유일하게 쉬는 날 봉사하러 오는 분들,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전부 기부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할까요.”

박수홍은 세상을 움직이는 작지만 진짜 큰 힘은 바로 자신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정작 도움을 받는 건 바로 박수홍 자신일지 모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수홍의 선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나눔은 곧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눌 수 있는 건 물질의 여유가 아닌 마음의 여유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것 말고, 진짜 마음이 가는 만큼만 하는 거요. 그러면 부담이 없어서 계속하게 돼요. ‘작지만 큰 힘’이란 말처럼 나눔의 저력을 잘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나눔의 저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수홍에게서 선한 영향력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가쁜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나눔 활동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는 박수홍의 여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

**아너 소사이어티 - 한라엠앤디 안성우 대표**

# “200원으로 시작된 희망, 수많은 시련 딛고 나눔의 꿈 이루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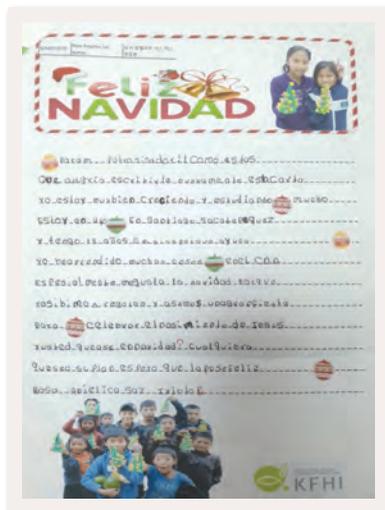
가난했던 유년 시절과 처절했던 청년 시절, 절박했던 중년 시절을 보내고 큰 병마와도 싸워 이겨냈다. 친절한 말씨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그의 인생 이야기는 숨이 가쁠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시련이 있었을 뿐, 실패한 적은 없노라고.

한라엠앤디 안성우 대표(이하 안 대표)는 중견 마트 법인 대표이자 아너 소사이어티 1,952호 회원이다. 부산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서울의 슈퍼마켓 체인 업체로 일궈낸 사업가다. 게다가 바쁘게 사업하는 와중에도 학업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학사로 시작해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도 한다. 버킷 리스트 항목 중 하나이던 시인이라는 꿈도 등단하며 이뤘다.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흔한 사업 성공기 혹은 자수성가 스토리처럼 들릴지 모른다. 더욱이 북한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자택 근처에서 만난 안 대표는 부드럽고 친절했으며 여유가 넘쳤고, 나이를 무색케 하는 패션 감각은 사업가보다 시인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 어디서고 지독하리만치 혹독하게 고생한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열아홉 살에 1만 원짜리 한 장 들고 혈혈단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가야 뭐라도 하겠다는 생각에, 서울에 와서 기타라는 악기도 처음 봤고, 쌀밥도 처음 봤어요.(웃

음) 그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열아홉 살 소년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고생은 파놓은 당상이었던 셈이죠. 그야말로 바닥이란 바닥은 죄다 겪은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요.”

식당 허드렛일, 다방 보조, 구두닦이 보조, 술집 웨이터 보조 등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안 대표는 진짜 죽을 결심을 했다. 그때 그의 나이 스물한 살이었다.



안성우 대표는 해외 빈곤층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해외 아동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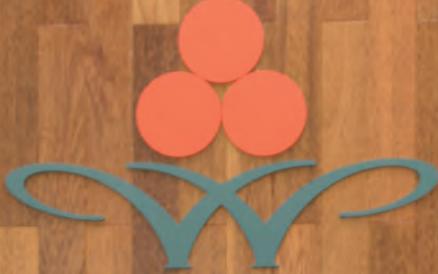
**시련의 연속, 내게도 희망이 있을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을지로의 한 다방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어요.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은 주지도 않은 곳이었죠. 그때 주방장이 울릉도 사람이라 맨날 자기 고향 애길 해서... 울릉도 같은 데서 죽으면 딱 사라지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 가는 배를 타려고 포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포항에 가니 굳이 울릉도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싶



Cafe BAMBI

Open 10 am  
Close 8 pm  
Monday Closed



# 아너소사이어티

## HONOR SOCIETY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은 안 대표의 주요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더라고.(웃음) 그래서 거기서 쥐약 두 병을 사서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포항의 송죽여관, 거기서 약을 들이켰죠.”

안 대표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후유증으로 한 달간 눈이 멀기도 했다.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스물한 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의 절망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극적으로 살아난 안 대표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막막한 현실 앞에 선택지가 없었던 그는 해군에 입대한 후 외항선 선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서 새

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당당히 합격한 항해 회사에서 먼 친척이 4·3사건 때 실종된 ‘좌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좌제로 쫓겨나고 말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그때였어요. 당시엔 아내와 갓난쟁이 아들이 있던 가장이기도 했던 말이에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 전역금 조금 받은 것에 빚까지 내서 전부 쓰며 항해사 자격증을 따고 합격했는데, 그게 무산되니까. 사회에서 살아나갈 자신은 없고, 처자식은 있는데 빚은 지고…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을 그때 절감했어요.”

### 6평 구멍가게가 마트 법인이 되기까지

안 대표는 제주도에서 1만 원을 가지고 혈혈단신 서울에 온 것처럼, 취업이 좌절된 부산에서 1만 원을 들고 다시 서울로 왔다. 서울역에서 3일 밤을 자고 돌아다니다 왕십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5,200원을 주고 굴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육교 한 가운데 좌판을 폈다. 한나절 만에 굴 한 상자를 다 팔고, 200원이 남았다. 손에 쥘 200원으로 용기가 생겼다. 이

후 2년간 전국을 돌며 채소부터 그릇까지 장돌뱅이 노점 장사를 했다.

“그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국을 떠돌며 장사할 때 서글픈 일이 참 많았죠. 그러다 지인을 통해 슈퍼마켓 관리자 자리를 소개받고 5년 동안 일해 점장까지 올랐어요. 새벽 4시에 시장 가서 물건 메다가 낮에는 매장을 관리하고 밤 11시에 퇴근하면서 사장님을 집까지 모셔다드려야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5년 만에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 일이 있는 이후, 근무하던 슈퍼마켓의 사장에게 500만 원을 빌려 부산 연남동에 6평(약 20m<sup>2</sup>)짜리 작은 구멍가게를 차린 게 바탕이 돼 오늘날의 마트 법인 한라엔앰디가 된 것이다. 물론 작은 구멍가게가 직영점 12개를 보유한 마트 법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스토리 사이사이에 수많은 시련과 절망이 있었다. 게다가 성공의 기쁨도 잠시, 2014년에는 신장암 3기 판정까지 받고 병마와 싸워야 했다.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상태다.

“제가 산을 좋아하거든요. 북한산만 가도 가파른 구간은 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절벽이 제법 있어요. 그런 곳을 오를 때면 온 신경이 밧줄 하나에 집중돼 그냥 올라가자는 생각만 하잖아요. 삶도 그렇더라고요. 절체절명의 순간일지라도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면 방법은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저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응원하고 싶었어요.”

### 어느 날 신문에서 만난 아너 소사이어티

고생했다고 엄살 피우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다. 거액을 기부했다고, 봉사나 나눔이니 하며 거드름을 피우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겪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다고 한다. 안 대표가 자신이 겪은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언젠가 신문에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형편이 되면 나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병이 덜컥 걸려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때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것이 상위에 랭크된 주요 랭킹 중 하나였어요.(웃음) 꼭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고 나니 생각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고생해서 어렵게 모은 돈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안 대표는 자신이 겪어온 인생 정도면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자고,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데 진정성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되묻는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맞는 말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렵게 산 인생이라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을 겪었고, 그만큼 얻은 것이 있으니까요. 아들에게도 늘 말해요. 어려워면 어려운 대로 극복하고 살아가야 삶이 풍요로워진다고요.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자식의 기회를 빼앗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도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안 대표는 자신의 삶이 이제 만추에 접어들었다고 표현한다. 그 모습이 ‘저 사람처럼 살다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만큼 아름답고 황홀하길 바란다면서 말이다. 그렇게 안 대표는 나눔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싶다고 한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말이다. ❀

## 예종석 회장이 만난 미주 동포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리더

“결국 남는 것은 교육과 문화”

### 이종문 암벡스그룹 회장

“줄부는 자식에게 물려주지만,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진짜 돈 잘 쓰는 방법이지요.”

사랑의열매는 아시아 지역의 교두보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재외 동포의 다양한 기부 욕구에 부응하고 동포 사회에 선진적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미주 한인 밀집해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나눔 문화를 선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인 기업가들을 직접 만났다.

암벡스그룹 이종문 회장은 91세의 고령임에도 꼳꼳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다. 지금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창조적 기업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 이종문재단을 설립해 교육·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그만의 나눔 역사를 개척하고 있다. 이루고 싶은 꿈과 좋아하는 일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종문 회장과 예종석 회장의 대담을 정리했다.

**이종문 회장(91·샌프란시스코)**은 1970년대 초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다. 컴퓨터에 문외한이던 그는 1982년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시스템스를 설립했다. 한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사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연간 10억의 하이테크 사업에 투자하며 실리콘밸리 지역 등에서 영향력 큰 벤처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좌)과 암벡스그룹 이종문 회장(우)

**예종석** 미국 이민 초창기에 컴퓨터에는 문외한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종문** 이민 후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회장이 운영하시는 한국 내 조선소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회장님 뵈기 부끄럽습니다. 거대한 조선소를 만드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정주영 회장께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절 쳐다보시면서 “이 사람이 젊은 친구. 그건 내가 무식해서 그래. 무식하지 않고 유식하면 계산이 나오나, 이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도 비슷할 겁니다. 무식해서 거기에 뛰어들었지 전자공학을 공부했으면 회사에 들어가지, 회사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덕분에 고생은 엄청 많이 했죠.

**예종석** 1982년 회사를 설립한 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종문** 사업 초기에는 6개월이면 애플, IBM 컴퓨터와 호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애플이 특허를 이중, 삼중, 사중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죠. 한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종석** 그럼에도 미국 내 컴퓨터업계에서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종문** 돈을 잇어야 합니다. 대신 무엇을 하든 아름답게 성사시키려고 하면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좋은 사람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것을 고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종석** 1995년에 이종문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이종문** 갑자기 부자가 된 이른바 졸부들은 탈세 등 갖은 방법을 쓰며 한 푼이라도 자식에게 더 주려고 애쓰죠. 그렇게 준 돈을 자식이 몇 년 만에 허망하게 잃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보단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돈 쓰는 멋도 느끼고요. 그 돈이 어떤 파생 효과를 낳는지 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걸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종석**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 1,500만 달러, 한국 교포 2·3세의 민족 교육을 위해 고려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셨어요. 특히 교육·문화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종문** 민족이 영속하기 위해선 교육과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조들에게 축적된 문화를 물려받았듯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산 역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화를 축적하기 위해선 좋은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제가 교육·문화 분야에 기부하는 이유입니다.

**예종석** 한국의 전체 기부금 중 개인 기부는 30% 정도입니다. 한국의 개인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장님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문** 어려서부터 나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 함께 실천을 강조해야 하죠. 나중에 커서 기부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개개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실천해야 사회 전체에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죠. 후손들도 본받아 기부 의순환이 일어난다면 살기 좋은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종석**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종문**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직 한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번영을 위한 삶보다는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한국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예종석**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문** 한국인은 똑똑하고 의지가 강합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국민이죠.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나눔 문화에서도 강대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일이지요.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한국도 좋은 영향을 받아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출생** 1928년 충청남도 당진      **소속** 암벡스그룹 회장  
**학력** 조지피피디 대학 대학원 도서관학 석사  
**수상** 2008년 제4회 한국 CEO 그랑프리 아름다운 CEO 부문 특별상  
**경력** • 1996~ 암벡스그룹 회장    • 1995 이종문재단 설립  
• 1982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시스템스 설립

한국형 기부자 조연기금에 100억 원 기부한 애터미 박한길 회장, 도경희 대표

# “소중한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 사랑의열매 역사상 기념비적인 전달식이 진행됐다. 글로벌 유통 기업 애터미에서 중견 기업 기부 사상 역대 최고액인 100억 원을 기부했다. 애터미는 10년 만에 고속 성장을 이루고 사회 공헌 활동까지 활발히 하며 중견 기업으로서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기부자 조연기금 역대 최고액인 '생소맘 기금'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애터미 100억 원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과 도경희 대표는 물론 임직원 30여 명 그리고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외 직원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애터미의 기부금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맘(이하 생소맘)이라는 이름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한국형 기부자 조연기금 4호로 운용된다. 한국형 기부자 조연기금이란 사랑의열매가 기금을 직접 관리하며 기부금 손실 없이 전액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맞춤형 기금 사업 운영 방식이다. 기부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재단 설립과 같은 효과를 낸다. 재단 설립을 고심하던 박한길 회장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였다.

“미혼모 지원 재단 설립을 열심히 추진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때 우연히 사랑의열매에 기부자 조연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돈을 잘 쓰기 위해선 버는 것 이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사랑의열매에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믿음직스러웠고요. 재단을 운영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더 많은 미혼모를 돕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지난해 3월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기금'과 올해 3월 '우아한 리더 샵 핏기금'으로 각각 기부자 조연기금 1호와 3호가 된 김봉진(주)우아한형제들 대표의 사례를 접한 것이 이번 기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애터미 생소맘기금은 미혼모 통합 지원을 위한 애터 SOS 및 애터 타운 설립 등 미혼모 지원 사업과 모금회 여성 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미혼모는 소중한 생명을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감당해야 할 짐이 많아요. 이 기금은 미혼모들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내는 응원이에요.”

### 20만 원에서 시작한 나눔의 생활화

애터미는 우리나라 토종 기업으로 2009년 설립한 이후 10년 동안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고속 성장으로 매출액 1조 1,000억 원을 넘어서며 미국, 일본 등 세계 13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유망 회사로 자리 잡았다. 애터미의 놀라운 성장 속도만큼이나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도 큰 화제가 되었다. 다문화가정 지원기금, 장학기금, 차량 전달, 연탄 배달 등 2009년부터 크고 작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나눔의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 도경희 대표는 “나눔은 우리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땅



최고액 기부 문화의 꽃을 피우고, 생명을 소중히 살핀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왼쪽부터) 애터미 박한길 회장, 도경희 대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예종석 회장

흘려 노력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회사 성장에 밑거름이 된 회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박한길 회장과 그의 가족은 개인 기부에도 힘쓰고 있다. 박한길 회장은 2014년 11월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뒤 이어 도경희 대표도 아너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되었다. 최근엔 자녀 2명도 가입해 패밀리 아너가 탄생했다. 이에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앞만 보기에라도 바쁜 시기에 초고액을 기부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결심입니다. 또 가족들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패밀리 아너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대표 가족이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기부를 하는 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부는 돈을 다 번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적게 내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씩 금액을 올리는 거죠. 또 먼 곳이 아니라 주변부터 도와야 하고요.”

박한길 회장은 실제로 창업 직후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에게 사비 20만 원 준 것을 시작으로 100만 원, 1,000만 원씩 기부금을 늘렸다.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을 투척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생활화한 결과인 셈이다. 기업의 뿌리는 사회이며 기업과 사회가 진정으로 소통하는 길은 나눔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앞으로도 나눔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20만 원에서 시작한 100억 원 기부를 달성한 애터미 박한길 회장. 그의 나눔 실천이 이웃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지 자못 기대된다. 🍀



### 에너지 나눔 희망 파트너 한국남동발전

## “발전기 돌리며 사람과 지역의 상생 꿈꿔요”

한국남동발전은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발전 전문 기업으로, 지역사회에서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소외 계층 복지 향상 등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주도해왔다. 한국남동발전의 핵심 조직인 한국남동발전 KOEN 나눔봉사단은 ‘함께하는 사람, 따뜻한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발전소 주변 지역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KOEN 나눔봉사단은 110여 개의 봉사 팀으로 구성되어 전국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2004년 창단 이후 2,300여 명의 전 직원이 연간 5만 6,000 시간의 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펀드와 회사의 매칭 그랜트를 합한 ‘사랑나눔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할 파트너로 사랑의열매를 선택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한국남

동발전과 사랑의열매는 주요 사업인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인 쉰리 프로젝트,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드림 JOB 프로젝트, 발전소 주변 지역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드림키움 프로젝트, 지역 환경 정화 예코(ECO)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진주를 비롯해 핵심 발전소가 자리 잡은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등에서도 동창해 여러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 씨니(Sunny) 프로젝트

### “주거 취약 이웃에게 전하는 밝고 따뜻한 에너지”

‘씨니 프로젝트’는 발전 공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2011년부터 주거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등을 시행하는 한국남동발전의 대표적 사회 공헌 사업이다. 프로그램 자체를 브랜드화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씨니 프로젝트는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주거지, 전기 미공급지, 전통시장, 복지 기관 등 4개 분야에 대한 에너지 나눔 활동을 말한다. 지금까지 취약 가구 약 3,100세대, 전통시장 다섯 곳,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질 높은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씨니 플랜트(Sunny Plant)’는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이 머무는 곳에 한국남동발전이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지원하고, 그 수익금은 취약 계층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 2월 진주시 문산읍 장애인 복지시설인 ‘행복한남촌마을’에서 태양광 나눔 복지 발전소 사업인 ‘KOEN 씨니 플랜트’ 준공식이 개최됐다. 한국남동발전이 총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29kW 설비 용량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행정 지원,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설치·유지 관리를 맡는다. 설치한 설비는 20년간 운영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약 1억 6,700만 원의 예상 발전 수익금은 복지시설인 행복한남촌마을에 기부한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통한 전력 공급뿐 아니라 태양광발전으로 얻는 수익으로 복지시설이나 에너지 취약 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큰

1 2019 드림커움 영어스쿨의 영어야 놀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수료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씨니 프로젝트 중 하나인 ‘씨니 가든’ 준공식, 씨니 가든은 복지시설의 옥상 방수와 조정,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씨니 플레이스(Sunny Place)’도 저소득층 주거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다. 삼천포발전본부 인근의 향촌동 주거 취약 가정 2세대를 추천받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원 받은 2세대 중 강 모 씨 맥의 경우 당뇨병으로 10년 넘게 투병하면서도 제대로 된 욕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씨니 플레이스 사업으로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 욕실 겸 화장실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돼 수차례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고성군 사곡마을의 독거 어르신 김 모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각장애자인 김 씨는 그동안 재래식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씨 부엌을 입식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싱크대와 창호를 설치해 한층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남동발전 사회 공헌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 사회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드림 JOB 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로 이웃에게 힘이 되는 에너지”

‘드림 JOB 프로젝트’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 공헌 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7년부터 시행하며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하는 ‘KOEN 로컬푸드 마켓 사업’은 지역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에는 진주시 금산면 ‘진주텃밭’ 금산점에서 드림 JOB 로컬푸드의 이전 개소식이 있었다. 한국남동발전은 진주 지역 로컬푸드 협동조합이자 사회적 기업인 진주텃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매장 운영 인력 등 총 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진주텃밭 금산점의 이전 리모델링 비용과 신규 농산물 가공 시설 도입 비용을 지원해 고용 유지와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공기업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계층의 자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단순 지원이 아닌 기업이 자립·성장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로컬푸드 마켓 사업을 추진 중이다.

‘KOEN 실버 카페 및 택배 사업’도 흥미롭다. 진주 중앙시장에 위치한



실버 카페 및 택배 사업 1호점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문을 연 곳으로, 노인 14명이 하루 4교대로 일하고 있다. 실버 택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 시장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배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사업이다. 현재 진주 실버 택배 거점에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실버 배송원들이 택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시장 내 배송을 맡아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KOEN 바다사랑 지킴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해안가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바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남 고성, 사천, 강원 강릉, 인천 영흥 지역의 만 60세 이상 노인 2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바다 환경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 카페 사업'을 벌여 취약 계층 청년 8명을 고용했으며, 올해는 농촌 기반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농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드림키움 프로젝트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 에너지”

한국남동발전은 농어촌과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 체험의 기회가 적은 발전소 주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2015년에는 영어스쿨, 과학스쿨, 역사스쿨, 축구스쿨 등 4개 사업에 약 3억 원을 투자해 총 93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는 이를 더욱 확대해 대학생 봉사단이 과외를 지원하는 '드림키움 멘토링'과 사랑의열매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진주 지역 취약 계층 자녀를 위한 '드림키움 장학 사업' 등으로 확대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키움을 대표하는 사업인 '드림키움 영어스쿨'은 한국남동발전이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전국 5개 발전소 주변 초·중등 학생들을 모아 국립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보통 10박 11일의 장기 캠프로 진행하는데, 참여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원어민과 영어로만 생활하며 실용 회화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등 다양한 상황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학생들은 '드림키움 역사스쿨'을 통해 독도와 울릉도의 해안선과 유적지를 탐방하는 기회도 가졌다. 발전소 주변 지역 초등학생들은 독도국제수호연대와 KOEN 드림키움 독도 탐방을 시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독도의 역사적·경제적 가치를 알고,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독도 수호 결의 대회, 독도 탐방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한 참가 학생은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나니 우리 영토의 소중함과 자부심이 더 커지는 느낌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드림키움 프로젝트 각 분야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2019년에 시작한 KOEN 드림키움 장학 사업도 전문적인 진행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맡겼다. 사랑의열매는 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한국남동발전본사 주변 지역 취약 계층 중학생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해 1인당 50만원씩 총 1,1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1 KOEN 바다사랑 지킴이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바다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이다.

2 드림키움 프로젝트의 역사스쿨인 독도 탐방 캠프로 독도를 찾은 학생들.





3 진주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진주텃밭 매장. 생산과 고용 모두 지역에서 이루어져 호응이 뜨겁다.  
4 진주텃밭 이전 오픈식에 참가한 관계자들.  
5 실버 카페에서 근무하는 실버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 6 사회복지시설에 전력 발전을 설치해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부하는 씨니 플랜트 사업.



## 에코(ECO) 프로젝트

###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에너지”

한국남동발전은 사랑의열매와 ‘에코 프로젝트’의 일환인 ‘석면 지붕 개량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주택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붕 개량비를 기탁하면 사랑의열매가 이를 관리·집행하는 형태로 2016년부터 3년간 총 147세대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교체했다. 슬레이트로 불리는 석면 지붕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 사용을 금지했다.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증·폐암·악성종양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 당시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화되면서 슬레이트(석면 함유량 15~20%)가 생활주변 석면 비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해 관할 시군에 폐기 물량을 신고하고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에서는 이를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석면 지붕 개량 사업은 경남광역자활센터 소속 자활 기업의 참여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자립 능력 강화 등 복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대표 명소 환경 개선 활동인 행복흙씨 입양 사업, 탄소상쇄 도시숲 조성 사업, 환경 정화 활동 등 분야별 사회 공헌 활동을 브랜드화해 집중 추진하고 있다. ‘KOEN 행복흙씨 프로젝트’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레 흙씨처럼 세상에 퍼뜨리자는 의미를 담은 환경 정화 사업이다. 주로 본사를 포함해 전 사업소가 주변과 지역 명소 등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고, 공원 놀이터 조성이나 태양광 벤치 등의 주민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KOEN 탄소상쇄 도시숲 조성 사업’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미래형 환경 공헌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과학관 공원(8만 4,248㎡) 부지에 4년간 이팝나무·배롱나무·산수유 등 약 760그루를 식재하고, 30년간 탄소 흡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람과 숲,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도시 숲은 30년간 총 347톤의 이산화탄소 탄소 상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앞으로도 국가를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더불어 꾸준하고 깊이 있는 나눔과 상생의 에너지를 창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랑의열매 · KBO 나눔문화 활성화 위한 홍보 협약 맺어**

# 국민 스포츠 야구와 나눔 흥런 한 번 더!

지난 6월 20일 서울시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사랑의열매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국민 스포츠 야구와 손잡으면서 앞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사랑의 골든글러브에서 시작된 20년 인연

지난해 12월에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롯데지이언츠 손아섭 선수가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했다.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은 사랑의열매와 KBO가 나눔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1999년 제정했다. 매년 선행에 앞장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수 또는 구단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것.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수여하며 프로야구팬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올해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사랑의열매와 KBO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 사랑의열매

는 외부 기관과 사회 공헌 협력 외에 나눔문화 홍보를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 ○ 올스타전에서 만나게 될 사랑의열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시상식과 수상자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전파, 7월 19~2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KBO 올스타전'에서 관람객에게 나눔의 가치를 공감하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운찬 KBO 총재는 “제정 20주년을 맞아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KBO와 사랑의열매가 협력해 야구를 통한 사랑 나눔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KBO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데 감사드린다”며 “국민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 나눔문화를 좀 더 가깝고 생동감 있게 전파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와 KBO가 맞잡은 두 손으로 또 한 번 시원한 나눔 흥런을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 제1회 나눔네트워크 파티

#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나눔 생태계

지난 5월 3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는 각 모금 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눔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공통 관심사를 토대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건강한 나눔 생태계 구축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모두가 기다린 첫 만남

‘제1회 나눔네트워크 파티’에는 사랑의열매를 비롯해 구세군복지재단, 굿네이버스, گیا대 책 등 국내 나눔 기관 19곳의 모금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모금 담당자들이 교류하는 네트워크 행사는 없었다.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사랑의열매를 찾은 각 기관 담당자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나눔 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말로 운을 떼며 “우리가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함께 연계해서 나눔을 선도할 때 더욱 큰 성과가 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를 도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참석자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공식 행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을 소개하며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에 막 나눔의 길에 들어선 새내기 담당자부터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담당자들까지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는 말이었다.

- 1 사랑의열매 직원으로 구성된 ‘볼 빨간 열매’의 축하 공연
- 2 환영 인사를 건네는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나눔네트워크 파티에 참석한 국내 나눔 기관 모금 담당자들

###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하다 ‘함흥함망’

환영 인사 후 사랑의열매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이 주제 강연 ‘모바시(모금을 바꾸는 시간 15분)’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고액 기부를 주제로 몇 가지 키워드를 화두로 던졌다. 가장 먼저 ‘함흥함망’이란 키워드가 소개되었다.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하다’의 줄임말로 각 기관은 경쟁자가 아니라 모금 분야에서 같이 성장해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기부자의 이슈’라는 키워드로 강연이 이어졌다. 7억 원을 기부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의 사례를 들며 이제 기부자들은 나눔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며 그런 준비가 된 모금 기관을 찾는다는 것. 이 밖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재정립해야 할지 등 15분 남짓한 짧은 강연 동안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었다.

나눔네트워크 파티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많은 참석자의 바람처럼 지속적으로 모임을 추진한다. 오는 8월과 10월에 각각 2차, 3차 나눔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때는 한층 더 깊은 대화를 나눔 계획이다. 앞으로 이 만남이 나눔문화에 어떤 새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



1

‘소다수 나눔 캠페인’ 론칭 콘서트 현장

# 짜릿한 기부의 즐거움, 함께 누려요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3일 소액 다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다수 나눔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 소다수보다 짜릿한 기부의 청량감을 맛볼 수 있는 론칭 행사의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2

지난 6월 13일, 사랑의열매 회관 앞마당에서 ‘소다수 나눔 캠페인’(이하 소다수 나눔) 론칭 행사가 열렸다. 소다수 나눔은 사랑의열매가 소액 기부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나눔 캠페인의 새로운 이름이다.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기부보다 가볍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며 다양한 방법을 안내한다. ‘소중한 다수의 기부’의 줄임말인 소다수는 특 쓰는 소다수 음료의 짜릿한 청량감을 부담 없는 소액 기부로 보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다. 이날 행사는 소다수의 상징물인 소다수 벤치 제막식에 이어 소다수 나눔 콘서트가 1,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소다수 벤치를 공개하는 제막식으로 시작한 1부 행사에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과 김연순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과 콘서트 출연 가수들이 함께했다. 예종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액 다수 기부 문화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모두가 즐겁고 쉽게 소다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화문의 오후를 뜨겁게 달군 짹짹 콘서트

2부 순서로 진행된 사랑의열매 소다수 나눔 콘서트는 싱그러운 6월의 광화문 일대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만들었다. 소액 다수 기부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콘서트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됐다. 행사의 사회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박수홍이 맡았고 가수이자 개그맨인 손헌수, 나눔리더 기부자 가수 리누, <보이스 코리아> 시즌 1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유성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제아가 출연해 50여 분간 공연을 펼쳤다. 점심시간에 맞춰 펼쳐진 콘서트는 인근 직장인들에게 짹짹 이벤트였다.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분들을 배려해 간단한 샌드위치와 소다수, 소다수 캠페인의 상징인 물방울 캐릭터 부채를 증정했다. 사랑의열매 회관 광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을 익살스러운 멘트로 붙잡는 박수홍의 진행 덕분이었을까, 콘서트 현장은 인근 직장인을 비롯해 2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나눔의 열기를 더했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가수 리누는 경연 대회 1등 상금을 기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거액만이 기부라고 생각하며 나눔을 어려워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소액 기부부터 재능 기부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다”고 행사에 참가한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1 <보이스 코리아> 시즌 1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가수 유성은은 특유의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였다. 2 소다수의 상징물인 소다수 벤치 제작식 모습 3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예종석 회장 4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과 개그맨이자 가수인 손헌수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5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제아는 제작식과 콘서트에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 신나게 기부하는 방법, 소다수!

화려한 출연진의 열창으로 콘서트 현장이 한층 뜨거워진 무렵, 사랑의열매 마스크트와 함께 김연순 사무총장이 무대에 등장했다. 무선 카드결제기를 챙겨 든 모습에 사회자 박수홍과 관객들이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연순 사무총장은 “쉽고 재미있게 소다수 나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무대에 올랐다”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일터, 착한기계, 착한가정뿐 아니라 ARS, 문자, 모금함 기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2,000원 소액 기부를 어디서나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 박수홍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즉석에서 기부에 동참해 큰 박수를 받았다. 보다 쉽고 간편한 소다수 나눔 기부를 위한 작은 퍼포먼스였다. 행사의 마무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예종석 회장은 “소다수 나눔 캠페인 콘서트를 시작으로 소중한 나눔이 전국에 물결처럼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소중한 다수의 기부를 통한 보다 신나는 세상, 소다수의 큰 걸음이 시작되었다. 🍀



# 나눔과꿈

땡큐 사랑의열매-고양시헌돌종합사회복지관

## “은퇴자 선배에게 듣는 직업 실전 노하우”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는 고양시헌돌종합사회복지관의 ‘인생스타팅노트’는 취업 준비생 청년과 선호 직종의 은퇴자를 연결해주는 상생 연대 프로젝트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위 세대인 은퇴자들이 나선 것이다. 청년과 은퇴자 모두 고양시 거주민으로 지역에서 시작한 일자리 자생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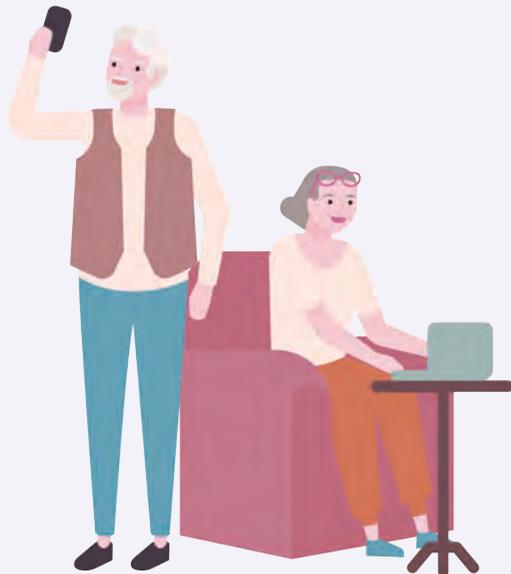


공개토크쇼 '각정말아요 청년'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인생스타팅노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청년 개인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단순한 시혜성 정책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연대할 때 한국적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 실업은 실제로 신노년층의 붕괴와 연결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내일이 은퇴자들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두 함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예비 직업인을 위한 필수 코스,  
인생스타팅노트**

나눔과꿈 사업 중 하나인 인생스타팅노트는 2019년 단기 사업으로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는 청년(멘티)을 중심으로 한



희망새싹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희망새싹’, 청년을 응원하는 은퇴자(멘토)가 중심인 ‘인생씨앗’, 이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에 공유하는 영상 보급 활동단 ‘공감필름’. 청년 스스로 청년 일자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 중·장년 은퇴자들이 현장에서 쌓은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은퇴자 멘토단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인 사회복지, 공무원, 일반 회사원(대기업·중소기업 등),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IT 등), 학자(교수·연구원 등) 등 전문직업멘토단과 직업군인, 인테리어, 요식업, 입시 전문 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공감멘토단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심리적 지원 체계를 모두 갖췄다. 이렇게 지역에서 청년(멘티)들에게 멘토단을 이어주면 청년들이 직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고, 단절되었던 세대 간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청년들의 목소리와 멘토의 노하우나 경험담을 영상으로 기록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공감하고 나눔으로써 사업의 파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은퇴자의 만남이 핵심이지만, 현재는 만남을 위한 각 세대 역량 강화 교육 중이다. 멘토들은 멘티인 청년과 현대사회 일자리 이해 교육, 소통·전달법 교육, 멘토링 활동의 세부 계획과 진행을 준비 중이고,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 준비 교육, 강점 기반 커리어 설계, 지속 가능한 일의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인생스타팅노트의 핵심인 ‘명랑 캠퍼스’가 펼쳐지는데, 이곳에서 은퇴자와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때 멘토 1명과 멘티 2명이 결연을 하고, 직종별로 ‘내가



순 노동에 그칠 뿐 전문 기술을 갖춘 은퇴자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많지 않았다. 인생스타팅노트는 청년 세대를 돕고 은퇴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이다. 활동하며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남은 인생을 설계해가며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청년들 역시 직업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 외에 지역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이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청년과 은퇴자의 만남은 세대 간 소통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정부와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꾸려간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멘토단인 인생씨앗은 지역 내 교회와 기업, 단체 등에서 참여자를 추천받았고, 멘티단 희망새싹과 영상 보급 활동단 공감필름 역시 인근 지역 대학교 홍보를 통해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로 구성했다.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세대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

꿈을 갖게 된 계기와 실패하고 성공한 사례'를 듣는다. 이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소개와 준비 과정, 이론, 현장 실습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 나올 것이다. 멘토링 활동인 인생씨앗은 추후에 청년들의 상담소 '희망씨앗'으로 발전시켜 멘토 서비스가 상시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실업의 허들, 지역과 세대가 함께 넘다

인생스타팅노트는 세대를 잇고 은퇴자들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은퇴 이후에 사회봉사를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단

1 영상 보급 활동단 공감필름 참가자들이 영상 촬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 은퇴자 멘토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글을 쓰고 있다. 3 인생스타팅노트 멘토단 4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들. 이 시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일의 로드맵 설계 등을 익힌다.





3



4

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것이다. 공감필름에서 제작하는 전문직업멘토단의 인터뷰 영상과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한 감성 스토리 영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급하려는 것도 상생 연대 활동의 일환이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직업 진로 관련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역의 긍정적 인식과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영상 보급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 안에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처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생스타팅노트의 시작이 더욱 소중하다. 🍀

## INTERVIEW

### “인생을 고민하는 청년을 위해 선배 세대와 지역사회가 나섰죠”

#### 김은혜·노선아 사회복지사



**‘인생스타팅노트’ 사업의 장점을 꼽는다면요?** 지역 안에서 함께하는 상생, 공감, 보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해 함께 나누며, 공감의 힘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복지적 상생을 추구합니다.

는 복지적 상생을 추구합니다.

**사업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관심과 반응이 저조했습니다. 은퇴자와 청년 세대의 교류가 드물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사업 초기에 시행한 지역 욕구 조사에서도 청년의 73%가 희망 직업군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 했지만, ‘기성세대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대인가’라는 질문에는 64%가 부정적 답변을 할 정도였지요. 모집 과정에서 지역 단체와 기관, 개인(주민)에게 참여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반응을 서서히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느라 시작은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참여자들을 초과 모집하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관심 직종 5개 분야로 한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별한 것인가요?** 지역 내 청년 100명에게 물어본 결과 희망 선호 직업군이 사회복지, 공무원, 일반 회사원(대기업·중소기업 등),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IT 등), 학자(교수·연구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직업군에 걸쳐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역 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5개 분야의 전문직업멘토단을 모집해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단은 은퇴자의 재능 기부 형식인데, 사회 기여 외에 다른 보상이 있나요?** 멘토단의 경우 일정 활동비가 지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은퇴자분들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안에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인생 선배단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인식하고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호칭도 ‘인생선배님’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 나눔과꿈 공모 개최

# “나눔과꿈 사업은 세상 변화 이끄는 혁신 발전소”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 사업인 ‘나눔과꿈’에 참여할 비영리단체를 모집한다.

나눔과꿈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연 100억 원 규모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공모 사업이다.

나눔과꿈 사업의 취지와 응모 절차,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가 서울·부산·광주·대전·수원 등 5개 도시에서 개최됐다. 모두 8회에 걸쳐 열린 설명회는 연회 매진되어 지역 활동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와 혁신을 담은 제안서는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나눔과꿈 홈페이지(www.sharinganddream.org)에 접수하면 된다.

### 행복한 세상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이든 환영

2020 나눔과꿈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2,100여 명으로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 사업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업설명회가 열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역시 활동가들로 가득찼다. 설명회에 참가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나눔과꿈은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와 사랑의열매 담당자, 든든한 파트너인 삼성전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권택 전무는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제안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역에서 시작한 작은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나눔과꿈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기치로 내걸고 2016년부터 시작한 공모 사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 시도하지 못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사업 특성에 따라 1년간 1억 원에서 최장 3년간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국내 비영리단체는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번 선정되면 다음 해 지원하지 못하는 조항을 없애 기존에 선정된 비영리단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의 문을 열어놓았다. 또 사업설명회에서 대면 질의를 받던 지난해와 달리 현장에서 스마트폰 오



현장에서는 응모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문이 이어졌다.



열정적인 활동가들로 가득한 2020 나눔과꿈 사업설명회장

픈 채팅방을 열어 질문을 받은 것도 달라진 점이다. 행사장에서는 “이 목이 집중돼 궁금한 점이 있어도 질문을 못 했는데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활동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나눔과꿈을 관통하는 변화와 혁신은 이렇듯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20년 나눔과꿈 사업은 7월에 공모 접수를 마치면 9월 서류 심사, 10월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60여 개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회 차 나눔과꿈 공모의 경우 총 1,106개 단체가 응모했고, 최종 65개 사업을 선정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3회 차 공모 사업까지 누적 167개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모두 300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 활동가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눔과꿈

나눔과꿈은 나눔 사업과 꿈 사업 두 가지로 구분한다. 나눔 사업은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 중 진행 방식과 전달 체계를 바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꿈 사업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인 것으로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단기와 장기 신청이 가능하다. 나눔과꿈 사업은 대부분 시혜, 자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복지과 교육 자립·보건 의료 외에도 문화 예술·글로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장기 사업으로 시작한 ‘건내량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연안 습지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을 화삼어촌계, 고교 환경 동아리와 함께 벌였다. 이 사업 하나로 사업 목적인 바다 환경이 개선

된 것은 물론, 어촌계 일자리 창출과 환경 의식 개선, 공동체 회복 등 다른 긍정적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었다. 그 결과 환경부 장관 표창, 통영시장 표창, 경상남도 교육장 표창을 받았으며, 지자체에서 해양정화 활동을 정례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사)국경없는교육기회에서 벌이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소득 증대 역량 강화 프로젝트’도 인상적이다. 2017년 단기 사업으로 최빈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계층인 농민 여성에게 1가구당 100마리의 병아리를 지원하고 양계 기술을 전수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후 성공적인 양계 사업으로 참가자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녀 양육과 농업 기술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협동조합을 창설해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좋은 정책과 지원은 많지만,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활동가들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현장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변화와 혁신은 이렇듯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나눔과꿈 사업은 활동가들의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바꿔줄 수 있다. 나눔은 이제 꿈을 넘어 현실이 된다. 가자, 나눔과꿈으로! 🍀



대면 질의 대신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질문을 받는 현장 모습. 효율적인 진행으로 참가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 1%의 가능성이면 충분해

- 삼성생명 임순이 상무



정확히 20년 만에 갑상샘암이 재발했다. 수술을 받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 마음은 막연한 느낌 같은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조차도 잘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습관처럼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우연히 아너 소사이어티 고객 기부자를 소개하는 방송을 듣게 됐다. 그 순간 '아! 이거다' 싶었다. 나도 멋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고 싶고,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일었다. 그길로 전화번호를 검색해 사랑의열매에 연락했다.

## 뜨거운 삶을 살게 만든 갑상샘암

암 수술 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의 삶이 부족하거나 후회스러운 건 결코 아니었다. 난 아주 열심히 살았다. 사실상 일중독에 가까웠다. 나는 1995년도에 대졸 공채 1기

삼성생명 FP로 입사해 2011년에 삼성생명 명예사업부장에 올랐다. 명예사업부장이란 명예임원으로 상무로 지칭된다. 이 자리에 오르려면 10년 이상 삼성생명 연도상 톱클래스에 들어야 한다. 영업의 영 자도 모르던 내가 도전해 이룬 것이다. 회사 일만 한 것도 아니다. 한 가정의 주부로 남매 둘을 키웠다.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해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얼마 전부터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도 한다.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바쁘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사람들이 묻는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말이다. 글썄, 워낙 적극적인 성격인 데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자세로 살아왔지만 처음부터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뜨거웠던 건 아니다. 1990년에 결혼해 1991년에 큰아들을 낳고, 2년 후에 둘째인 딸을 낳았다. 그리고 1994년에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 갑상샘암은 착한 암이란 소리까지 하며 비교적 치료하기 쉬운 암으로 여기지만, 당시만 해도 수술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핏덩이에 가까운 어린아이 둘을 보고 있으려니 당시의 심정은 지금도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다.

### 칭찬받는 기분을 선사하는 기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삶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졌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레 포기하고 나중에 후회하기 싫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만 아니라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도전했다. 그런 나의 마음이 일과 학업, 가정을 모두 지켜내며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된 것 같다. 그리고 20년 만에 암이 재발했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저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 주어졌다고 여겼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여행과 봉사다. 그중에서도 보람된 봉사를 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오늘날 나의 성공은 가족과 고객, 그리고 날 응원한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고마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5년 약정으로 매달 통장 이체를 통해 기부했다. 한 번에 목돈을 낼 수도 있었지만 일을 하고 있었기에 열심히 살아보자는 각오의 표현이었다. 매달 기부금이 이체된 걸 확인하면 그렇게 기쁘고 짜릿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뜻깊게 살고 있구나, 한 달 한 달 칭찬받는 기분일까.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아이들 앞에서 있는 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다. 백 마디 말보다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을 거란 생각에 뿌듯했다. 몇 달 전 약정이 끝났다. 약정 기간 동안 해외 의료 봉사를 하는 단체를 돕기도 하면서 봉사에 눈을 떴다. 나는 이 보람된 여정을 멈추고 싶지 않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말이다. ❀

2014년 광주 17호, 전국 52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및 약정식 모습. 가족들 앞에서 있는 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뿌듯했다.



정신우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 신선놀음이 필요한 한량에게 추천하는 민어

〈한국의 맛〉의 저자 고강인희 선생은 책 머리말에 민어에 얽힌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물가에 앉아 민어의 비늘을 따던 소녀 앞에 민어는 눈물로 씻겨 내리고, 눈앞에서 그 고기가 자꾸 커져가기만 하던 추억도 오늘의 이 책을 만들게 한 채찍이 되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을 요리의 고난으로 가득 채워준 민어. 그 소녀의 눈물은 민어 부레의 끈기조차도 씻어낼 만큼 서럽고 서글펐을 것이다.” 준비하는 사람은 눈물이 나고 먹는 사람은 신선의 미소를 짓는다는 민어다.

###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 맛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이 한창인 계절이면 목포 형님에게 으레 전화가 오곤 했다. “풍어관에 실한 놈 들어왔다던디! 땡겨 와야제!” 조금 과장해서 어린아이만 한 민어가 들어오는 날이면 가족 전체가 회동을 한다. 민어는 6월이 지나야 기름이 차올라 맛이 든다. 거기에 제철 애호박을 곁들이고 고추장 풀어 푹 끓인 민엇국(민어감정)은 갈갈하면서도 담백하고 기름진 국물 맛이 일품인데, 요맘때 삼밥이나 취쌈을 준비해 곁들이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맛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민어 살로는 부위별로 모듬회를 준비해 기름장에 찍어 먹거나 어선, 어채, 어포, 어만두를 만들 수



있는데 민어감정, 민어구이, 민어전은 그 냄새조차 대문 밖을 벗어나지 않게 문단 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나눠 먹기에 가까운 것이 민어 맛이란 이야기다.

특히 민어감정은 여름 보양식으로 으뜸이라 했으니 싱싱한 민어를 손질해 머리, 꼬리, 등마루, 뼈, 이리, 부레 등 민어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고

루 취한다. 채 썬 소고기는 다진 파, 다진 마늘, 도톰하게 썬 무와 함께 보리고추장에 쓱쓱 무쳐 뚝배기에 담아 불에 올린다. 머리 곤 물을 냄비에 담고 국물이 펄펄 끓으면 손질해 둔 민어를 넣고 굵직하게 툭툭 썬 미나리와 파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갓 지은 쌀밥에 잘 익은 물김치 하나 곁들여 거품을 걷어내고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무릉도원이다. 게다가 민어알은 송어알 다음가는 최고의 어란으로 치며, 민어 살에 소금을 뿌려 수분을 날리고 말린 것을 암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곱게 부풀려서 참기름에 무친 암치자반은 빛깔도 곱고, 그 맛은 담백하고 정갈하기 그지없어 선녀가 만든 찬이라 했다. 그중에서도 귀한 것은 다름 아닌 민어 부레다. 맑은 줄무늬가 한지에 그려진 구름 모양만큼 부풀부풀하고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좋다. 이것을 깨끗이 손질해 잘게 썰어 볶으면 진주 같은 구슬이 되는데, 아교구라 하여 보약 재료로 썼을 만큼 정말 귀한 식재료다. 특히 옛날 양반들이 최고의 안주로 손꼽은 것 중 하나가 어교순대라 하여 민어 부레에 소를 채워 찐 음식이었으니, 그 맛은 상상으로만 가늠할 뿐 먹은 뒤의 기쁨까지 유추해낼 도리가 없다.



1 부위별로 맛이 다른 민어회는 숙성하면 향이 깊어진다. 2 속이 시원해지는 민어탕

### 무릉도원의 한량이 되어볼까

민어 부레 특유의 점착성과 탄력은 예로부터 유명해서 자개장을 만들 때 점착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나 지금은 부레 자체도 귀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생활하기 더욱 간편하고 안락한 것을 원하는 세태이다 보니 요리 역시 손쉽고 먹기 편한 음식 위주로 인기가 높아진다.

민어라는 생선은 크면 클수록 상품으로 친다. 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거지말 조금 보태서 상어만 했다. 그 크고 두툼한 민어를 손질해 필요한 대로 포를 뜨고, 뼈를 발라 살은 말리고, 내장은 골라 쓰고, 알은 손질해 말리고, 껍질은 귀하게 밥에 쓰고... 하나 버릴 것 없이 부지런을 떨었을 그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자 어린 소녀를 생각하니 민어 한 점 입에 넣기가 참으로 미안하기만 하다.

“어지러운 한세상, 날은 점점 더워지고 몸과 마음은 황망하기만 하니 암치포무침 한 점에 술 한잔 기울이고, 내 잔을 다시 채워주시게! 내 어만두 한 점에 신선처럼 살겠소! 이것이 민어로 살아가는 한량의 무릉도원이오!” 나는 민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



정신우 셰프가 그린 민어



정신우 셰프는 국내 1호 남성 푸드 스타일리스트, 오너 셰프 레스토랑 운영 등 화려한 이력을 지녔으며 현재 플레이트 키친 스튜디오의 대표로 요리 강사와 멘토로 활약 중이다. 2014년 흥선암을 선고받았으나 환자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요리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최근 저서로는 먹방 에세이 <먹으면서 먹는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 <365 샐러드> 등이 있다.

# 책과 함께하는, 읽는 휴가

여름휴가를 떠날 때 습관처럼 책을 챙기게 된다. 비록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휴가 때 책 한 권은 상비약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번 휴가에는 어떤 책을 가져갈지 나를 신중하게 정한다. 실패 없는 '읽는 휴가'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와 눈에 띄는 신간 중 일부를 고심해서 골라보았다. 올해 여름은 이 책들과 사색이 있는 휴가를 보내길.



## PART 1

### 복잡하고 시끄러운 건 딱 질색

# 한가롭고 여유 있는 휴가에 어울리는 책

파도가 넘실대는 해변에서, 편안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휴가지로 떠나거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유를 만끽하기 좋은 책을 소개한다.

무심코 지나친 서울살이 꽃들의 진면모

### 서울 화양연화 김민철 지음 | 목수책방

17년째 꽃을 짝사랑 중인 저자가 청계천 조팝나무 꽃, 덕수궁 살구나무 꽃, 광화문 벌개미취 등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식물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은 에세이다. 서울을 오가다 만난 꽃부터 작가 박완서와 행운목, 화가 이중섭과 복사꽃 등 문학과 미술, 영화 등에 등장하는 꽃과 서울 근교 야생화까지 두루 다루었다. 꽃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식물과 친해지고 싶은 식물 초보자에게도 좋은 입문서이자 안내서가 될 듯하다. 특히 식물과 친해지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팁도 정리했으니 참고하면 더욱 좋다. 이 책은 꽃에 대한 글을 쓴 지 7년 된 저자가 그동안 조선일보 등 여러 매체에 쓴 글을 추려 다듬어 묶은 책으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꽃을 소개하고 있다. 책을 넘기다 관심이 가는 부분부터 읽어도 좋고, 앞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도 좋다.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친 꽃에 눈인사를 건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꽃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추천글** 풀·나무와 친해지기 위한 첫 친구로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문학을 사랑하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기자의 장점이 잘 담겨 식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색이 녹아 있으면서도 식물 정보가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이유미(국립수목원장)

**추천글**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모르던 많은 꽃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름을 알고 제대로 호명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 김민철 기자는 많은 소설가가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눈치챈, 눈 밝은 고수다. -이기호(소설가)

**사서의 추천** 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걸었을 길, 현재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작가가 느끼는 감정들을 따라가보자.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조선 시대의 삶

### 도시를 걷는 시간 김별아 지음 | 해냄출판사

베스트셀러 <미실>을 쓴 김별아 작가의 필력과 상상력으로 독자를 수백 년 전 서울로 초대한다. 작가가 직접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조선 시대 표석을 찾아가 당시 주요 국가 기관과 서민들이 살아낸 생생한 삶의 흔적 32곳을 문장에 담았다. 표석을 둘러싼 주변 전경 사진을 함께 수록해 시간 저편의 삶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PART 2

이불 밖은 위험해

# 집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 방콕 여행자를 위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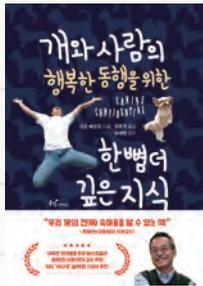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최고의 휴가라는 방콕족,  
그들을 위해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흥미진진한 책을 골랐다.

반려견과 더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 개와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한 뼘 더 깊은 지식

마크 베코프 지음 | 동녘사이언스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이자 평생 개를 사랑한 남자 마크 베코프가 쓴 이 책은 개의 행동 세계를 열어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의 삶을 가능한 한 최고로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돕는다. 다른 책에선 볼 수 없던 개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편견을 타파하는 이야기가 가득 담겼다.



추천글 우리 개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책 - 최재천(이화여대 교수)

눈물 속 뺨 정도로 유쾌한

### 그래서 좀 쉬라고 호르몬에서 힘을 살짝 빼준 거야

막심 레오, 요헨 구취 지음 | 모래의책

독일 아마존 선물·위로 분야, 유머 분야, 건강·연령 분야, 가정·이혼 분야 등 각 분야별 1위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은 에세이집이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결코 무겁지 않다. 웃기며 따뜻한 위로까지 건네니 어떻게 이 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서의 추천 이 책이 선사하는 유쾌한 웃음과 함께 잠시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쉬어보는 것은 어떨까.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어른이'에게

### 저마다의 별을 찾아서

윤혜진 지음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그림 | Qrious

저자는 <어린 왕자>가 자신에게 좋은 친구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위로와 힘을 얻은 저자는 다른 어른들에게도 '어린 왕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생텍쥐페리의 생애와 <어린 왕자>의 탄생 배경, 작품 속 문장과 대화에 숨어 있는 의미를 쉽게 풀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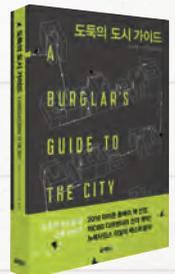


사서의 추천 이 책의 저자가 들려주는 생텍쥐페리의 생애를 떠올리며 <어린 왕자>를 다시 읽으면 이 작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보는 법

### 도둑의 도시 가이드 제프 마노 지음 | 김주양 옮김 | 열림원

도둑의 눈으로 본 도시는 과연 어떨까? 마치 한 편의 스릴 넘치는 영화를 보듯 저자는 도둑들이 침입하기 위해 건물을 활용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그렇다고 범죄를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책에서 침입 절도는 끔찍한 범죄임을 강조한다. 다만 도둑들이 규칙을 어기며 발견한 건축물의 진짜 가능성을 주목한다. 이 덕분에 우리가 사는 세계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공간적 가능성의 우주를 볼 수 있다.



사서의 추천 도둑의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건축에 대한 접근법이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 PART 3

좋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

# 휴가철 본격 '덕질'을 위한 책

특정분야를 깊이 있게 좋아하는 '덕후'들은 소중한 휴가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숨은 맛집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

### 입을수록 침 고이는 먹방 에세이 먹으면서 먹는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 정신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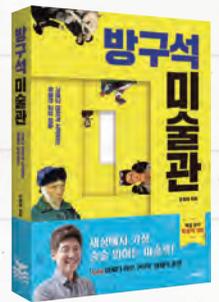
다양한 음식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뷔페처럼 펼쳐지는 '본격 먹방 에세이'다. 세계문화유산과 맛바꾼 쌀국수, 학창 시절을 함께한 떡볶이와 짜장면, 파스타 실력을 판가름하는 봉골레 파스타 등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떨며 음식을 먹는 듯한 착각이 드는 음식 수다집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신의 수다를 읽고 난 후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쌓길 바라는 진심을 담았다. 셰프의 추천 맛집 111곳이 실려 있어 그곳을 찾아가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이다.



책속의 한 줄 서로를 위하고 축복하고픈 본능 사이에는 언제나 미역국이 있다. 따뜻하고 매끈한 국 한 그릇이 부모와 자식을 잇는 다리가 되고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음식은 비단 초코파이뿐만이 아닌 것이다. - '어머니와 나의 연결고리 미역국' 중에서

### 낄낄 웃으면서 보는 미술 입덕 교양서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지음 | 블랙픽쉬

출간 후 예술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33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유지했을 정도로 독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저자는 팟캐스트 1위 <방구석 미술관>의 기획자이자 진행자로, 미술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화가의 삶부터 제대로 파헤쳐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유의 감칠맛 나는 스토리텔링으로 미술관 속 미술계 거장들을 방구석으로 불러낸다. 반 고흐가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속사정, 피카소가 노상강도 소리까지 듣게 된 까닭 등 화가의 사생활부터 명화의 숨은 뒷얘기까지 탈탈 털며 유쾌한 미술 세계로 안내한다. 🍷



사서의 추천 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딛고 이 책을 통해 미술계 거장들에게 입덕해보자.

### 천재들의 지혜를 담은 착한 책을 추천합니다

착한권리 도서 부문 1호 이소노미야 2018년 9월에 이소노미야는 사랑의열매 착한권리 도서 부문 1호가 되었다. '인류 천재들의 지혜 시리즈'로 발간하는 책의 정가 중 5%를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있다. 인문 고전을 새로운 스타일로 펴낸 이 시리즈는 이소노미야가 오랫동안 준비한 야심작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WHY>를 시작으로 이마누엘 칸트의 <국월>, 마크 트웨인의 <최면술사>, 존 스튜어트 밀의 <타인의 행복>, 나쓰메 소세키의 <소나티네>, 앙리 뒤낭의 <휴머니타리안>까지 총 여섯 호를 발행했으며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이다. '인류 천재들의 지혜 시리즈'는 기존 번역서와 달리 평범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편집해 술술 읽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인문 고전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소노미야의 시리즈로 인류 천재들의 지혜를 쉽고 재밌게 만나보길 권한다.



중앙회



**하나금융그룹,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지난 6월 17일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은)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홍천군(군수 허필홍),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는 강원도 홍천군 해밀학교에서 '해밀상호문화교류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밀상호문화교류센터의 건립 비용은 총 30억 원으로 하나금융그룹과 강원도에서 각각 15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 11월에 건립되는 해밀상호문화교류센터는 다양한 이주·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방학 기간에는 전국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하나

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허필홍 홍천군수,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해밀학교 김인순 교장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포용과 배려를 배우며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과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에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도움을 준 하나금융그룹에 감사드린다. 다문화 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언어·교육·문화 등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OK저축은행 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 체결

OK저축은행(대표이사 정길호)은 지난 6월 19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OK저축은행은 2014년 설립 이후 매년 전국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해 연말에는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등 아프로서비스그룹 관계사 임직원 3,000명이 김장, 연탄 나누기,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키트 제작 등 여러 방식으로

봉사 활동을 해왔다. 그뿐 아니라 OK배정장학재단을 통해 중고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인기 스포츠도 후원하고 있다. 정길호 대표는 “OK저축은행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사회와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확대하고자 사랑의열매와 손잡게 됐다. 앞으로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 공헌 선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서린컴퍼니(주) 취약 계층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 전달

지난 6월 19일 서린컴퍼니(주)(대표 이영학, 정서린)는 사랑의열매에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서린컴퍼니(주)는 ‘1025 독도토너’로 20~30대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저자극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 라운드랩을 운영하는 중소 생활 화장품 기업이다. 서린컴퍼니(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1025 독도토너 수익금 일부를 독도 탐방 훈련 및 독도·동해 표기 바로잡기 실천

운동에 사용하는 독도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도상국 여아들의 교육과 여권 신장을 위해 지원하는 플랜 코리아 프로젝트이다. 서린컴퍼니(주)는 1025 독도토너를 만들면서 수익금 일부는 독도와 소외 계층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초심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전달받은 2,000만 원은 ‘라운드랩과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1025 독도토너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취약 계층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 '2019 희망운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유공자 표창식 및 공유회

지난 6월 4일 서울 사랑의열매는 '2019 희망운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유공자 표창식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 기여도가 높은 노원구·성북구·구로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가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표창을 받았다. 김용희 사무처장은 "민관이 함께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풀뿌리 모금을 활성화해 서울 전역에 나눔 향기가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구, 나눔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서울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19일 강남구청, 강남복지재단과 함께 '나눔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풀뿌리 나눔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 협약을 맺어 조성한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운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내 기부 문화를 확산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현대백화점그룹, 대학생 봉사자에게 장학금 전달

지난 5월 31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는 'THE 가끔' 대학생 봉사자 9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THE 가끔 사업은 지속 가능한 학습 멘토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와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대학생들을 연계해 아동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서울 사랑의열매가 공동 기획하고, 현대백화점그룹이 후원하는 사업이다.



### 서울 사랑의열매, 한여름 대비 취약계층 보호 지원 사업 전개

서울 사랑의열매는 혹서기를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총 2억 원 상당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냉방비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96개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84개소),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37개소),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42개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전달하며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지원으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약 4,500명에게 2주간 1,000만 원 상당의 생수를 지급한다.

###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53개 부스, 수익금 1,000여만 원 기부

제13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한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 기업, 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 53개 기업과 단체가 부스 운영 수입 1,044만 3,000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울산 사랑의열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전달해 소외 계층 지원과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사용한다. 우시산 대표는 “장미축제에 와주시 시민들께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근로복지공단, 이웃 돕기 성금 전달 및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새해 다짐 실천과 연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조성한 846만 원을 기탁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 기부 캠페인은 '작심3일? 실천100일! 1+1 기부 캠페인'으로 1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0일간 진행했으며, 총 507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모금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저소득 환우를 위해 사용한다. 또 근로복지공단 사회봉사단은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해 3년 이내 1,0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 희망2019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 개최

전북 사랑의열매는 '희망2019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도지사 표창은 (유)신양해운 나형운 대표, (주)한국아트라스 BX 배호열 대표 등 8명이 받았다. 전라북도의회 의장 표창은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황수연 대표를 포함해 6명이 수상했다. 전북 사랑의열매 회장 표창, 이웃 돕기 부문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등 개인 및 기업 16곳이, 배부 사업 부문에서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등 개인 및 기관 9곳이 받았다.



### 부안석재, 착한가게 2,000호 가입

전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2,000호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부안읍에 위치한 부안석재(대표 김영택)로 이번 가입으로 매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다. 부안석재의 가입은 부안읍 복지 허브화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영택 대표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작은 용기를 낸 것인데, 부안읍 첫 번째 가입이자 전북 지역 2,000번째 착한가게라니 감사하고 부끄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세종 2019년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 전개

세종시 소외 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 사회복지 기관들이 모였다. 이번 지원 사업은 세종 시민이 모은 성금 5,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더욱 뜻깊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쿨매트, 모기 퇴치제, 여름 이불, 모기장, 수건 등 여름용품들을 선물 상자에 포장했다. 세종 사랑의열매는 2018년부터 혹서기와 혹한기에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으며, 이번 지원 물품은 세종시 소외 계층 320가구에 전달한다.



### 다비치안경 조차원점, 저소득 안경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세종시와 다비치안경 조차원점(점장 정영일), 세종 사랑의열매가 관내 어려운 이웃의 안경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다비치안경 조차원점은 세종시에서 추천한 대상자 15명에게 분기별로 5만 원 범위에서 연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정영일 점장은 “안경값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걱정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 현대에너지솔루션, 사회 공헌 기금 2,000만 원 기탁

현대에너지솔루션(대표 강철호)은 지난 6월 4일 음성군의 복지 취약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 공헌 기금 2,000만 원을 충북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전달받은 성금은 소년·소녀 가장 및 저소득층 가구, 경로당,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황명익 음성공장장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 착한가게 1,200호 달성

충북 도내 소상공인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충북 착한가게 1,200호가 탄생했다. 옥천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충제)이 그 주인공이다. 6월 20일 김재중 옥천군수, 충북 사랑의열매 이명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반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충제 조합장은 “미약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옥천농협이 되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애틀미, 사회복지시설에 치즈 1만 4,610개 전달**

지난 10일, 애틀미는 충남 사랑의열매에 구워 먹는 치즈 1만 4,61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치즈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공주시와 세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29곳 이용자들의 간식과 식재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애틀미는 2013년부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애틀미는 “좋은 기회를 통해 물품이 공주시 관내 다양한 복지시설로 전달되어 기쁘다. 숭선수범해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2019년 전국 기획 사업 배분금 전달 및 수행 기관 교육**

충남 사랑의열매는 전국 기획 사업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해 7억 8,6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선정된 기관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사업 4개소, 지역 약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주택 모델화 사업 1개소, 마을 단위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화 사업 4개소, 취약 계층 임신·출산 지원을 통한 초기 양육 환경 조성 사업 1개소다. 선정된 기관의 담당자들은 회계 교육 과 핵심 성과 달성을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도 함께 했다.

**신기문화관광시장, 인천 첫 번째 착한시장 탄생**

지난 6월 11일 신기문화관광시장에서 '신기문화관광시장,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시장' 선포식이 열렸다. '착한시장'은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모여 있는 시장이다. 이번 선포식으로 신기문화관광시장은 인천시 전통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착한시장이 됐다. 김종린 상인회장은 “착한시장의 나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봄날 이상연 작가, 2,000만 원 기탁**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을 받은 문인화가 봄날 이상연 작가가 지난 6월 18일 전시회 수익금 2,000만 원을 기탁하는 동시에 나눔리더 125호에도 가입했다. 수익금은 <너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라는 합동 기부 전시회를 열어 마련한 것이다. 이상연 작가는 “창작의 고통은 컸지만 3년 동안 준비한 전시회를 실현하게 돼 기쁘다. 무엇보다 협업해주신 55인의 컬래버레이션 작가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대전 5개 구구청장, 나눔리더 동시 가입

지난 6월 18일 장종태 서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대전 최초로 나눔리더에 동시에 가입했다. 대전 구청장들은 5개 구 민선 7기 1주년 기념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이다. 가입식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기부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대전 지역사회 내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전 사랑의열매, 2019년 기획 사업 배분 전달식 개최

대전 사랑의열매는 '2019년 기획 사업'의 세 가지 기획 사업에 선정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 사업 배분 전달식을 진행했다. 3개 기관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적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생명의 터'와 취약 계층 임신·출산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전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 보호 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된 '대전사회복지사협회'다. 이 3개 기관에 총 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며 앞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 이재수 한의원장, 6,000만 원 상당 아동 수영복 기부

이재수 한의원장이 지난 6월 7일, 수성구청에서 대구 사랑의열매에 6,000만 원 상당의 물에 뜨는 수영복 500벌을 전달했다. 이 수영복(유피플)은 저체온증을 막는 보온 효과와 자외선 차단 효과 등의 기능까지 갖춘 제품으로, 수성구 내 저소득·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나누어준다. 이재수 한의원장은 2012년 12월, 대구 한의사로는 최초로 대구에서 일곱 번째 아닌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왔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랑의 선풍기 200대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이하 산단공)은 지난 6월 11일 대구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200대를 기탁했다. 산단공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물품이다.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기부할 내용을 선정해 더욱 의미가 깊다. 200대의 선풍기는 대구 동구의 독거 어르신 100세대와 대구 성서산업단지 인근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100세대에 전달한다.

전남

**포스코광양제철소, 희망 하우스 10호 입주식 진행**

포스코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는 지난 6월 29일 '희망 하우스 10호' 입주식을 가졌다. 희망 하우스는 사회복지시설의 누수가 심한 지붕이나 화장실을 수리하고 장판과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매년 사회 공헌 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하고 있다. 이시우 소장은 "포스코광양제철소 봉사단의 재능 기부를 통해 회사 경영 이념인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시민'으로 도약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의용소방대연합회, 사랑의 집짓기 업무 협약**

지난 6월 23일 장흥군 소방교육대에서 전라남도의회용소방대연합회(회장 안훈석)의 '사랑의 집짓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안훈석 회장과 22개 시군 회원과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성금은 전남 도내 주거 환경 취약 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사용한다. 안훈석 회장은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해준 전남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경기

**서원컴프레샤 박종옥 대표, 3,300만 원 상당 차량 전달**

서원컴프레샤의 박종옥 대표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현재까지 약 11억 원 상당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한 3,3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이동 수단 수리용 탐차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 전달해 사회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다. 박종옥 대표는 "사회복지 관계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지원했다. 나눔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 포천시 나눔 유공자 오찬 모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지난 21일 아트밸리 자작나무에서 2019년 나눔 유공자 오찬 모임을 가졌다. 포천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오찬 모임은 포천시 관내 나눔 실천 기관 및 단체, 개인을 적극 발굴·격려해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경기 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은 "앞으로도 사랑의열매는 포천시 관내 나눔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9회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 워크숍 개최

경남 지역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두산중공업(주), 한국남동발전, NC다이노스 등 22개 기업의 사회 공헌 담당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참석자간의 업무 교류와 친목 도모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부산 삼진어묵 홍순연 이사가 '기업 사회 공헌과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19년 기획 사업 전달식 및 수행 안내 교육

경남 사랑의열매는 2019년 기획 사업으로 분야별 4개 주제, 총 6개소에 4억 3,642만 원을 전달했다. 지역사회 중심 및 사회문제 해결 방식 다양화를 위한 전국형 사업 3개 주제에 대해 4개 기관에 1년간 1억 원씩, 최대 3년, 기관당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회 기획 사업으로 지역사회 욕구 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분야 수익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컨설턴트 지원 사업'으로 2개 기관에 총 3,600여만 원을 지원한다.

###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업무 협약 및 포럼 개최

부산 사랑의열매는 6월 11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진구, 북구까지 6개 기관이 참여한 포용적 복지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업무 협약과 포럼을 진행했다. 지원받은 사업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선도 사업에 선정된 부산진구와 북구의 인프라 구축과 주택 사업에 사용한다. 이어진 2부 포럼에서는 청와대비서실 민영배 사회정책수석의 '지방자치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레이 차량 지원

지난 6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장애인 사업 수행 기관 6개소에 '레이' 차량 6대를 전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과 강원 산물 피해 성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에 전달받은 차량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이정환 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으로 장애인이 복지와 서비스를 더 쉽게 받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제주

**(사)청년제주, 8년 째 이어온 장학금 3,200만 원 전달**

지난 17일 (사)청년제주(이사장 강철호)는 제주의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3,2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매년 청년제주 회원들이 일정액을 후원해서 모은 '청년제주 장학금'과 김형준(탐동365의원 원장) 장학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봉희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29명에게 전달했다. (사)청년 제주는 2012년부터 꾸준히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그 금액이 5억 원에 달한다.



**제주에너지공사, 전기 요금 지원금 6억 원 전달**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는 지난 6월 7일 2019년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비 6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지자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제주도 내 장애인 및 조손 수급자(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모든 가구에 6월부터 10월 까지 총 4~5회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신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주 환경에 기여하고, 발전 수익을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사업에 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원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투병 어린이 후원**

지난 6월 10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본부장 박명득)는 지역 투병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 5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받은 치료비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 수 112명에 맞춰 모은 사내 기부금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 중인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 어린이의 청력 회복 수술비로 사용한다. 박명득 본부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적절한 헌혈 매칭 기부금이 뜻깊은 곳에 쓰여 기쁘다"고 전했다.



**원주시 나눔봉사단, 제6회 사랑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강원 사랑의열매 원주시 나눔봉사단(단장 정우문)이 현충일을 맞아 만종리 대명원 주민 100여 명을 위해 사랑 나누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 활동은 회원들의 재능을 살려 의료 봉사, 복지 상담, 세무 상담, 웃음 치료, 레크리에이션, 집수리, 점심 식사 및 다과 제공으로 이루어졌다. 정우문 단장은 "31년째 대명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동 밥차 지원**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7일,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한성)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밥차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받은 이동 밥차는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찾아가는 아동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성주군 관내 10개 읍·면 및 오지에 이동 복지 서비스와 식사를 제공한다. 이한성 관장은 "전달받은 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주군 취약 계층의 생계와 건강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전했다.



**2019 경북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3일 경북도청 동라관 세미나실에서 2019 나눔봉사단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희망2019년나눔캠페인의 주요 활동과 연중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풀뿌리 기부 문화 확산과 나눔봉사단을 통한 사회 공동체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2012년 10월에 발족했다. 나눔봉사단은 23개 시군별 사랑의열매 기부 캠페인 홍보 활동 및 재능 기부 활동, 물품 배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금호주택, 복지사업비 2,000만 원 전달**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주)금호주택 김명군 대표이사가 광주 사랑의열매에 복지사업비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명군 (주)금호주택 대표이사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흥석 지사회장, 광주 사랑의열매 이성도 사무처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김명군 대표이사는 "이 후원금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을 밝혔다.



**(주)메르시라이프,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5월 28일 (주)메르시라이프(대표이사 이광은)는 시각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32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시각장애인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또 문화·역사적 사물을 직접 만져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쓴다. (주)메르시라이프 이승우 부사장은 "성금이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에 잘 사용하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장애 인식과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경기 207호**  
**김영세 (주)피드테크 고문**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며 수목을 자라게 하고 사람에게 식수를 공급하듯이, 돈도 그렇게 흘러가야 하고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116호**  
**윤정악 (주)성신RST 감사**  
박계출 아너(경남 95호)의 배우자, 경남 8호 부부 아너  
“어두운 곳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북 51호**  
**현운선 (주)디에프텍 대표이사**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누군가에게 동기유발이 되길 바라며, 지역민의 복지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72호**  
**익명**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 지난 호 독자 의견



나이 들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나눔이더군요. 아이 키우는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부분은 아무지게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참 좋은 덕목을 놓친 것이 아쉬워요. 6월호 나의 '첫사랑' 코너에 실린 '착한 타이밍을 잡아라!' 기사 잘 보았습니다. 착한가게, 착한일터에 이어 나눔리더에게까지 가입해 나눔을 실천하는 오상훈 대표와 그 가족의 미소 가득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이렇게 어여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가 봅니다. "나눔을 통해 보람과 행복도 느끼지만, 사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성공의 욕구가 강해진다"라는 오상훈 대표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진심으로 박수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어서 열심히 나눔을 펼치고 미인이 되어볼래요.  
- 경북 상주시 최예진

이번 호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총성! 사랑의열매가 국군 장병을 응원합니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흐뭇한 내용이었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온 열정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군인의 품격 공연, 청춘책방 개설, 전우사랑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사랑의열매 지원 사업을 보며 우리 사랑의열매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사나이들을 지켜주는 또 다른 진짜 사나이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군 장병들이 사랑의열매가 건네는 힘찬 에너지를 받아 대한민국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최한석

책에서 읽은 문구가 생각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사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엔젤맘 현영의 착한가게 모습이 나와서 얼른 인터뷰 소식을 펼쳐봤어요. 사랑의열매와 14년 전 봉사로 인연을 맺은 연예인 대표 기부 천사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도 이제 따라쟁이가 되려고 합니다. 현영 씨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따뜻하네요. 아이들도 자연스레 엄마의 소원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아 흐뭇합니다. 올해 여름은 무더울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도 잘 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충남 공주시 허정민

##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머그컵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코백

##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 나눔과꿈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 2020년 나눔과꿈 사업신청 안내

### 사업소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및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2019. 6. 10(월) 09:00 ~ 2019. 7. 26(금) 18:00까지 (7주간)  
나눔과꿈 홈페이지(www.sharinganddream.org) 접속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지원분야

분류①		분류②	
꿈	나눔	단기	장기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1년	3년

### 사업기간 및 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지원기준
단기사업	2020. 1. 1 ~ 2020. 12. 31 (1년간)	기관당 1년간 1억원 이하
장기사업	2020. 1. 1 ~ 2022. 12. 31 (3년간)	기관당 3년간 5억원 이하

※ 사업신청 하한액 : 3,000만원

### 신청자격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 제출서류

- ① 2020년 나눔과꿈 사업계획서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1부
- ③ 시설신고증 복사본 파일 1부
- ④ 비영리사회적기업의 경우, 비영리 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⑤ 온라인 입력사항 :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 사업진행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접수	6/10(월) ~ 7/26(금)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심사	8월 ~ 10월	관련분야 학계·현장전문가의 서류심사 및 면접, 현장심사
선정	11월 말	선정결과 안내 및 전달식
사업수행	2020년 1월	계약체결 및 배분금 지원

### 문의

02-6262-3132, 3137, 3138

나눔과꿈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 공간

또는 실시간 상담이용 (10~17시 운영)

\*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SAMSUNG**과 **사랑의열매**가 함께합니다.



## 열매와 함께 만드는 초록 지구별

